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기적은 멈췄지만 역사는 계속 쓴다

준플레이오프서 SK에 역전승
PO서 삼척시청에 1점 차 석패
시즌 내내 끈기와 독심으로 새 역사
팀 전력 탄탄해지며 새 시즌 기대감

광주도시공사핸드볼 팀의 거침없는 질주가 플레이오프에서 멈췄다. 광주도시공사는 창단 이래 창단 첫 포스트시즌에 오른 여세를 몰아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올랐으나 삼척시청에 탈미를 잡혔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정규리그 4위라는 최고 성적을 거뒀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의미있는 성적을 남겼다. 팬들은 광주도시공사의 환골탈태를 작은 기적으로 평가한다. 2010년 팀 창단 이래 최하위 팀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어느 팀도 넘볼 수 없는 탄탄한 전력을 갖춘 팀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창단 이래 9년 동안 12승에 그친 팀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21일 강원도 삼척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플레이오프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24-25로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삼척시청을 상대로 경기 종료 약 3분 전까지 23-23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삼척시청 이효진과 송지은에게 2점을 내줘 승기를 놓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종료 1분 전에 강경민의 만회 골로 1골 차로 추격했으나 끝내 다시 동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다만, 정현희가 7골로 팀 최다 득점을 올렸다. 정규리그 득점왕 강경민이 삼척시청에 철저히 봉쇄돼 5골에 그친 게 두고 두고 아쉬웠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열린 준플레이오프에서도 저력과 독심으로 정규리그 3위 팀 SK 슈가글라이더즈를 29-27로 꺾었다. 이날 전반에 3골 차로 끌려간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11분이 지날 때는 5골 차로까지 간격이 벌어져 패색이 짙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11골, 8어시스트를 기록한 강경민을 앞세워 맹렬히 추격, 경기 종료 7분여를 남기고 24-24 동점을 만들었다. 또 25-25 동점이던 종료 4분 30초 전에는 광주도시공사가 7m 스로를 얻었고, 이때 항의하던 SK 박성립 감독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지며 선수 2분간 퇴장까지 더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이 7m 스로를 넣고, 이어 진 공격에서 정현희가 득점에 성공하며 2골 차로



챔피언 결정전 3위...졌지만 잘 싸웠다

광주시체육회 이평형 사무처장,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21일 SK핸드볼코리아리그 챔피언 결정전 3위에 오른 광주도시공사 선수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달이나 승기를 잡았다. 이날 강경민 외에 서아루가 6골, 원선필 4골 등으로 활약했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오늘도 SK전과 마

찬가지로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핸드볼협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제는 '오사카 시대'

호주오픈 테니스 우승...메이저 대회 결승 네번 올라 모두 승리



라커룸에서 호주 오픈 우승 트로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오사카 나옴이. /연합뉴스

오사카 나옴이(24·일본)가 여자 테니스에서 세리나 윌리엄스(40·미국)의 뒤를 이을 확실한 강자로 자리를 굳혔다.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끝난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제니퍼 브레이디(24위·미국)를 2-0(6-4 6-3)으로 물리치며 정상에 오른 오사카는 최근 열린 9차례 메이저 대회 가운데 4번이나 우승했다. 2018년 US오픈부터 올해 호주오픈 사이에 열린 9차례 메이저 대회 중 지난해 프랑스오픈에는 불참, 오사카가 출전한 메이저 대회 기준으로는 우승 확률이 무려 50%나 된다. 또 그 기간에 나머지 5개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는 모두 각각 다른 선수에게 돌아갔을 정도로 오사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현역 여자 선수 가운데 메이저 단식 우승을 오사카보다 더 많이 한 선수는 세리나 윌리엄스(23회), 비너스 윌리엄스(7회) 두 명뿐이다. 세계 랭킹 3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오사카는 이번 우승으로 22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2위에 오른다.

현재 1위는 애슐리 바티(25·호주)인데 바티는 2019년 프랑스오픈 우승이 유일한 메이저 우승 경력이고, 그 외에는 메이저 대회 결승에도 진출한 적이 없다. 특히 오사카는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결승에 네번 진출해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는 1991년 모니카 셀레스 이후 여자부에서는 30년 만에 나온 기록이고, 남자부에서는 로저 페더러가 2004년에 유일하게 달성했다. 또 오사카는 메이저 대회 8강에만 들면 무조건 우승까지 차지했다. 메이저 대회 결승, 준결승, 8강전 성적이 12전 전승이다. 일본인 어머니와 아이티인 아버지를 둔 혼혈 선수인 오사카는 180cm의 키에 파워를 갖춰 이번 대회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서브 에이스 50개를 쫓았다. 서브 최고 속도 197km로 202km를 찍은 세리나 윌리엄스에 이어 2위였다. 타고난 신체적 조건에 경험과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 맞물리며 오사카는 '포스트 윌리엄스'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12년 전 박철우 폭행 사죄...이상열 감독 잔여 경기 출장 포기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의 이상열 감독이 자신이 12년 전 폭행했던 박철우(한국전력)에게 사죄하고 잔여 경기 출장을 자진 포기하기로 했다. KB손보 배구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감독이 2020-2021 V리그 잔여 경기 자진 출장 포기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과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박철우 선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또한 시즌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배구 팬들과 구단, 선수들에게도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KB손보 배구단에 잔여 경기 출장 포기 의사를 밝혔다. KB손보 배구단은 이 감독이 박철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 감독의 자성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오는 21일 6라운드 첫 경기인 OK금융그룹과의 경기부터 이 감독은 출장하지 않는다. 이 감독은 "다시 한번 박철우 선수와 배구 팬들에게 12년 전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지난 17일 최근 배구계 학교 폭력에 대해 "난 (폭력) 경험자라 선수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 중이다. 어떤 일이든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18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빅스톰과 KB손해보험 스타츠의 경기.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철우는 2009년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이 감독에게 구타를 당했고 고소까지 진행한 피해자다. 이 기사를 보고 격분한 소셜미디어(SNS)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글까지 게재됐다. 박철우는 이어 경기 후 인터뷰를 자청해 "정말

반성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랐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도 다른 선수들에게 '박철우만 아니었으면 내 맞았다'고 말한다는 얘기가, 주먹으로 못 때리니 모자로 때린다는 얘기가 들렸다"고 자심 비판했다. /연합뉴스

7번 우드가 노인용? 세계 1위 존슨도 쓴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병기" 7번 우드는 흔히 50세 넘은 시니어 골퍼나 초보자가 쓰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짧고 힘이 넘치는 프로 선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장타자인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의 백에도 7번 우드가 꽂혀 있다.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

널 1라운드에 나선 존슨이 7번 우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약명 높은 10번 홀(파4·309야드)에서 7번 우드로 티샷했다. 10번 홀은 웬만한 PGA투어 선수라면 한 번에 그린에 볼을 올릴 수 있는 짧은 파 4홀이지만 그린과 그린 주변이 워낙 어려워 선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존슨의 7번 우드 티샷은 305야드를 날아 그린 왼쪽 페어웨이에 떨어졌다. 두 번의 퍼트로 가볍게 파를 지킨 존슨은 "내가

겨냥한 곳으로 볼이 갔다. 다만 내 예상보다 볼이 더 멀리 갔다"고 말했다. 존슨이 계산한 캐리 거리는 255야드였다. 존슨이 7번 우드를 백에 넣은 건 작년 8월 PGA 챔피언십이 처음이다. 그는 "처음에는 7번 우드를 계속 쓰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병기"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와 5번 우드를 쓰고 있었는데, 5번 우드 거리가 3번 우드와 같았다. 그래서 용품 회사가 7번 우드를 권했다"는 존슨은 "처음에는 탄도가 아주 높았는데 지금은 스피인은 그대로이면서도 낮은 탄도로 친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1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보기 1개를 곱들여 3인더파 68타를 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계획은
웅장하게
한량은
사자처럼

퍼펙트케어
02.19 일요일 19:00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파서블
2관	미션 파서블
3관	빛과 철, 새해전야, 더블패티
4관	소울
5관	소울, 긴이역,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미션 파서블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세네카를
8관	세네카를

소울, 시간의 끝에서 널 기다려, 어나스트 씨프, 인투 더 미러,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아이, 퍼펙트케어, 몬스터 헌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모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GAC기획공연 포시즌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